

은행권 문턱높아 카드론 쓸림현상

국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실적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문턱이 높아진 데다 신용관제 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카드사들이 고수익의 카드론 사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론 이용자 중 상당수가 금리인상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인 만큼 연 10% 이상의 높은 금리의 카드론 증가세가 다중채무로 허덕이는 서민가계의 부채 질을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올들어 9월까지 장기간대출(카드론) 취급액은 총 26조17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조1402억원)에 비해 3조375억원(13.13%) 가량 크게 늘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신한카드의 카드

장기카드대출 취급액 전년대비 3조375억원 급증 서민가계빚 부실 우려... 평균 연14% 금리 물어

론 이용실적이 5조8,9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4조4,712억원), KB국민카드(4조4,020억원), 현대카드(4조1,015억원), 롯데카드(2조8,798억원), 우리카드(2조1,897억원), 하나카드(2조2,41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7개 카드사들의 카드론 실적(하나카드 제외)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2013년에 24조6,199억원이었던 이용금액은 2014년 26조1,246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9조9,761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카드론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불황 속에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카드사들이 높은 금리마진을 얻을 수 있는 카드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쉽게 빌

릴 수 있는 카드론으로 대출 수요가 불리고 있다.

카드사들은 저금리 기조에 조달비용이 크게 줄었지만, 대출금리 인하에는 여전히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보면 현재 카드론 금리는 평균 연 14% 수준이다.

삼성카드(15.21%), 현대카드(14.89%), 신한카드(14.71%), 하나카드(14.61%), KB국민카드(14.15%), 우리카드(14.04%), 롯데카드(13.14%) 등의 순으로 평균금리가 높았다.

특히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카드론 이용고객에 적용된 평균금리는 최저 8.98%에서 최고 12.32%로, 카드사들은 신용도가 높은 우량고객에게도 10% 안팎의 높은 금리를 물리고 있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연 20%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는 고객 비중도 높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삼성카드의 전체 이용회원 중 금리 연 20% 이상 회원 비중은 31.43%에 달했다.

카드론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향후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자들이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카드론을 주로 이용하는 데다 다른 빚을 갚기 위한 '둘러막기식' 대출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무분별한 카드론 사용이 가계부채의 악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카드론 등 카드사 대출도 소득 수준에 맞게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재용 기자

양돈연구회 허상식 회장, 도의장상 수상

“현장과의 가교역할 할 것”

한국양돈연구회 허상식 회장이 지난 달 25일 N타워 웨딩홀에서 열린 '제3회 전북 한돈인 대회'에서 한돈산업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도의장 상을 수상했다.

한돈자조금과 대한한돈협회가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에서 의장상을 수상한 허 회장은 “고품질 한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돈 현장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며 “현장과 업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허 회장은 “양돈산업의 생산규모는 5조원에 달해 매출 규모면에서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다음으로 큰 산업”이라며 “하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 개방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내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전문적인 기술과 효율적인 경영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우정청, 2017 정유년 연하우표 발행

전북우정청은 1일 2017 정유(丁酉)년을 맞아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은 연하우표 2종 56만장과 소형시트 10만 세트를 발행했다.

우표는 떠오르는 태양과 닭의 힘찬 발걸음을 통해 새해의 희망과 기쁨을 묘사했다.

눈 속에서 멋진 자세로 서 있는 닭의 모습은 정유년의 주인공이 되고 싶

은 우리 모두의 기대와 자신감을 담았다.

특히 이번 우표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채로운 색상이 나타나는 홀로그램 박을 적용해 닭의 모습을 밝고 화려하게 표현했다.

또한, 우표전지에 QR코드를 넣어 정유년과 연하우표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은,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임실치즈농협과 1일 임실군 성수면 소재 당당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요구르트를 전달했다.

전북농협-나눔축산운동본부-임실치즈농협 임실 성수면 경로당 방문 축산물 전달

전북농협은,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임실치즈농협과 1일 임실군 성수면 소재 당당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요구르트를 전달하는 나눔축산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임실군 및 전주시에 소재한 경로당과 복지관 등 42개소를 농협 임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540만원 상당의 축산물(요구르트)을 전달하는 사랑의 축산물 정나눔 행사였다.

임실치즈농협 실동섭 조합장은 “어르신들이 요구르트를 드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업의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축산 관련 단체와 임직원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해 기금을 조성하

고, 조성된 기금은 불우이웃돕기, 환경정화활동 등의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전북신보, 김장담그기 봉사

전북신보보증재단은 1일 도립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나눔과 사랑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전북신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김장재료 구입해 전북도청 대외협력국 직원과 함께 김장을 담궈 200세대의 소외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안재용 기자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서 지역통계발전 토론회 개최

호남지방통계청은 1일부터 2일까지 남원 컨벤션리조트에서 지역통계발전 및 통계개발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업무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통계의 정확성 제고 및 지역통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호남지방통계청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의 지자체 통계 담당 공무원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저비용·고효율의 빅데이터(행정통계)를 활용한 각종 지표 작성, 맞춤형 지역통계서비스 제공 등 지역통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전개됐다.

특히 최근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통계 품질관리를 위한 작성기관의 자율적인 품질진단 및 관리 내실화, 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찾아가는 통계교육 소개, 통계개발 우수사례 공유 등의 다양한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호남통계청 문관순 청장은 “통계기반의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통계청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신뢰성 있는 지역통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우유, '가격보다 맛' 선호

농진청, 주부 742명 대상 소비행태 조사

국내 소비자들이 우유를 구입할 때 '가격'보다는 '맛'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25세 이상 주부 742명 대상으로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상 가정의 91.2%는 주 1일 이상 우유를 마시고 있으며, 5일 이상 마시는 가정도 4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우유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구성원은 미취학 자녀부터 중고생 자녀라는 답이 많았고, 이어 본인 및 남편, 성인 자녀 순이었다.

우유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맛(71%)'을 꼽았고, 이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59%)', '가격(52%)', '제조회사(4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ml 흰 우유의 적정가격으로는 현 판매 가격의 약 80% 수준인 1,973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대답했다. 앞으로의 우유 소비의향에 대해서는

건강적인 측면과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려는 용도로 지속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반면, 보관·휴대의 어려움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는 의견도 있어 이를 개선·해소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유제품의 경우에는 대상 가정의 68.9%가 주 1회 이상 발효유를 소비한다고 답했고, 치즈는 49.4%, 버터는 20.1%만이 주 1회 이상 소비한다고 대답했다.

소비 이유로는, 발효유의 경우 원활한 장 기능(44.9%) 및 영양 보충(34.4%) 등 건강상 이유가 많았으며, 간식용(42.3%)이나 맛이 좋아서(41.5%) 구매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치즈는 요리 위해 구매한다(51.8%)는 답이 많았고, 안주(29.8%), 간식용(26.5%)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우유,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방안과 중장기적인 연구전략 수립을 위해 수행했다.

/안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